

내적치유를 위한 묵상 - 3

- 김형석 목사/ 1994

내적치유 누구에게 필요한가

내적치유,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러한 물음은 마치 내적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과연 내적치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적치유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내적치유를 마음의 심각한 문제나 장애, 그리고 심리적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담 등을 통하여 「내적치유 세미나에 좀 참석해 모시지 않겠습니까?」하고 권면하면 「내가 무슨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뭣하러 그런 데에 참석해요」라는 항변 비슷한 대답을 듣게 된다. 병원 정신과에는 정신병 환자만 간다고 생각하는 오해와 같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치유를 무작정 인본적인 심리치료로 생각하여 영적, 신앙적 치유와 상반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해도 있다. 그러나 내적치유는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차원 이상의 것이다. 마음이 그다지 괴롭지 않거나 큰 상처가 없는 사람들, 내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단순한 심리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다.」 (마 9 : 12) 고 말씀하셨고, 「의인을 부르러 왔다」 (마 9 : 13) 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병든 자들이며,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다. 구원이 필요치 않다고 말할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마찬가지로 내적치유가 필요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적치유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기에 예수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죄로부터 구원과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의 치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구원과 치유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

구원의 완성과 회복을 위한 내적치유

내적치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내적치유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자에게도 필요하다. 『나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문제와 함께 심각한 마음의 갈등과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 죄의 문제는 물론 나의 마음의 문제까지 깨끗이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된다. 죄의 문제와 그 상처로 인해 눌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죄사함의 감격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항상 기쁘고 성령충만 하기만 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마치 자신이 천사가 되고 예수가 된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구름 위를 날아다니고, 자신이 앞길에는 승리와 능력으로 점철되는 탄탄대로만이 있을 줄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내 속의 쓰물과 내면의 상함들이 솟아 나오고,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내면의 문제들이 나타나 나를 괴롭히기도 한다.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아의 모습들이 고개를 쳐들기도 한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 . 이미 치유되었다고 생각했는데. . . 이게 어찌된 일인가?』하는 의구심과 함께 죄사함과 구원의 사건까지도 흔들리고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얻은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요, 치유의 시작일 뿐 구원과 치유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생명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회복을 위한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구원과 거듭남의 영적 사건으로 비유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을 경험했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고 약속하신 기업을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계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

나눔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심을 확인했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위를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쓴물과 상함을 경험해야만 했고, 기나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그것을 치유해야만 하였다. 이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쓴물과 상함은 계속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

변화와 성장을 위한 내적치유

내적치유는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성령충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구원과 복음이 있지만, 그 자체가 곧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씨가 그 속에 있긴 하나 그 씨가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통하여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롬 1 : 16)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 또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겨자씨」에 비유하신다(마 13 : 31 ~ 32). 이처럼 복음의 씨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이다. 우리의 상처나 고개어진 마음밭 말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네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이것을 우리의 내면에 적용해볼 수 있는데, 옥토를 제외한 세가지 밭은 상한 마음밭이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복음이요, 생명력이 있는 구원의 씨라 할지라도 그 마음밭이 상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천국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 불신과 두려움, 세상의 것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 때문에 그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봄날의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어도 창문의 커튼을 굳게 쳐두면 그 빛은 방안에 쏟아져 들어오지 못하고 그 화사한 별을 만끽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 용서와 치유의 빛이 나에게 부어져도 내가 나의 내면의 상황으로 인해 마음의 커튼을 드리우고 있는 한 그 사랑의 빛과 은혜를 내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적치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내 속에 임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벽을 깨뜨리는 작업이요, 마음에 드리워진 커튼을 열어젖히는 작업이다.

또 그것은 내 속에 자리한 복음의 씨가 자라도록 내 마음의 묵은 것들을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하는 작업이다. 아울러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어 많은 열매를 맺으시도록 나 자신을 비우고 청소하는 일이다.

* 출처 - 온누리신문 / 1994. 10.16~11.6